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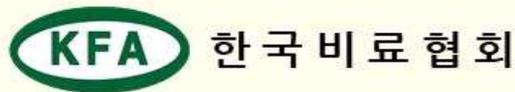


# 식량과 비료

2021년 9월호



1. 회원사 동경
2. 협회 주요 활동
3. 무기질 비료 관련 동향
4. 농정 이슈
5. 무기질비료 수급상황
6. 무기질 비료 우수성 홍보
7. 이달의 주요 인사
8. 회원사 제품소개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 1 회원사 동정

### □ 남해화학(주)

#### ○ 청정 암모니아 활용 수소 캐리어 도입 업무협약 체결



농협 경제지주 계열사인 남해화학이 27일 삼성물산·한국남부발전과 ‘수소 캐리어’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수소 및 혼소 발전 실증을 위한 수소 캐리어로서 청정 암모니아를 도입하고, 청정수소 공급망 개발에 협력하기 위해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남해화학은 수소 캐리어(암모니아) 저장탱크 및 공급 인프라를 제공하고 공급망 구축에 따른 안전규정과 기술검증, 제안을 통해 인프라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삼성물산과 한국남부발전은 각각 사업모델 개발과 선진기술 도입, 수소 캐리어 사업실증 및 해외수소 도입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남해화학은 삼성물산과 비료제품 수출 등 트레이딩 사업으로 40여년간의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에는 국내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양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수소사업 분야로 협업분야를 확대했다. 또한 이번 남부발전과 3자간 업무협약으로 더욱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하형수 남해화학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탄소중립 및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남해화학은 신사업 발굴 및 친환경 기업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1. 8. 27. 동아닷컴 기사내용 인용

○ 여수공장, 동남아 고객사에 방역용품 지원

-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필리핀으로 지원확대 예정

남해화학은 코로나19 재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고객사에 방역용품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동남아시아로 연간 약 50만톤의 비료를 수출하고 있는 남해화학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이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사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순차적으로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해화학은 지난달 30일 태국에 위치한 치아타이(Chiatai)사에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전달했고 뒤이어 베트남과 필리핀 고객사에도 방역용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하형수 남해화학 대표는 "오랜 기간 유대를 쌓아온 고객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1. 9. 15. 브레이크뉴스 기사내용 인용

□ (주)조비

○ “마늘·양파 생육 돕고, 영양 안정적으로 공급”

- 비료 ‘단한번OK·케이마그칼슘플러스’ 추천



단한번OK



케이마그칼슘플러스

마늘·양파 재배시기가 다가온 가운데, (주)조비가 마늘·양파 고품질 다수확을 위한 비료로 자사의 ‘단한번OK’와 ‘케이마그칼슘플러스’를 추천했다.

조비에 따르면 단한번OK는 완효성비료와 토양개량제인 뉴트리세이브를 함유한 기능성 비료로, 완효성 비료를 함유하고 있어 시비횟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비료효과 유지기간이 길어 노동력과 비료 사용량 절감이 가능하고, 봄철 재생기에 비료효과가 끊어지지 않아 비절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료 과다 시비로 인한 병해충 발생과 품질저하를 줄일 수 있고, 환경오염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단한번OK에 들어있는 뉴트리세이브가 미생물, 부식산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토양개선 효과를 볼 수 있고, 뿌리 발육과 착근이 좋아져 마늘·양파의 안정적인 생육 및 품질

향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닐피복 재배시 발생하는 웃거름에 대한 불편함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비료다.

케이마그칼슘플러스는 선사시대 때 육지 위 바다가 증발하면서 형성한 황산기반의 천연광물질로 만들어 유기농업자재로 공시한 제품이다. 천연광물질로 만든 만큼 작물과 토양에 해가 없으며, 유허과 황산칼리 뿐만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도 함유해 맛과 향을 높여주고, 구 비대에도 효과적이다. 전체 성분이 서서히 지속적으로 녹아 작물에 흡수되는 것이 특징이며, 병해충에 대한 면역력 증가에 효과적인 것도 케이마그칼슘플러스의 강점이다.

케이마그칼슘플러스는 유허 48%, 칼슘 17%, 황산칼리 14%, 마그네슘 6%로 구성돼 있어 밭 장만 시 기비로 사용하고, 추비로도 사용 가능하다. 추비로 활용할 경우 월동 후 수확 3~4개월 전에 사용하면 된다.

※ 2021. 9. 7.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 [추천 비료] 효과 빠른 질산태 비료 ‘스피드킹’·‘스피드NK’·‘스피드추비’



스피드킹



스피드NK



스피드추비

최근 질산태 비료에 대한 농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비에서는 효과 빠른 질산태 비료 ‘스피드킹(밀거름)’과 ‘스피드NK’·‘스피드추비’(웃거름) 등 스피드 시리즈 3종을 추천했다.

#### # 최적 비율로 빠른 효과

조비에 따르면 스피드킹과 스피드NK, 스피드추비는 질산태 질소와 암모니아태 질소가 최적의 비율로 조합된 비료로 양분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양분흡수 효율이 높다. 시비 후 질산태 질소가 초기에 필요한 양분을 빠르게 공급해 생장을 돕고, 이후 암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태 질소로 변환돼 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양분 유실이 적고 비료가 오래 지속된다. 질산태 질소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망간, 아연 등 양이온을 띠는 다른 주요 양분과 미량요소가 작물에 골고루 흡수되도록 돕는다. 또한 토양 내 이동성이 좋아 고랑에 시비해도 작물이 잘 흡수할 수 있다. 아울러 저온에서도 비료 흡수가 빨라 마늘, 양파 등 월동작물 재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 조비만의 기능성물질로 보다 강력하게

여기에 더해 스피드킹과 스피드NK에는 조비만의 기능성물질 CB04가 함유돼 있다. CB04는 미생물 추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미노산과 비타민 물질로 용해가 쉽고, 흡수가 빨라 작물 대사활동을 활발히 한다. 또한 생리장해 예방, 면역력 증가에 도움을 주며 생물활성을 좋게 한다. 아울러 뿌리 성장을 개선해 양분의 유실을 최소화하고, 이용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조비 측의 설명이다.

조비 관계자는 “스피드킹, 스피드NK, 스피드추비 등 스피드 시리즈 질산태 비료로 마늘, 양파, 김장 배추 등 월동작물의 생육과 성장을 도울 수 있다”며 “밧겨름 제품인 스피드킹은 초기 생육을 왕성하게 해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웃겨름 제품인 스피드NK와 스피드추비는 중후기 생육을 좋게 해줘 품질 향상, 조기수확, 생산량 증대가 가능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 2021. 9. 13. 농수축산신문 기사내용 인용

## □ (주)팜한농

### ○ 원예용 완효성 비료 ‘한번에아리커’ 인기

- 빠르게 흡수되는 질산태 질소, 정식 후 초기 생육 확보
- 웃겨름 시비횟수·노동력 절감



팜한농(대표 이유진)의 ‘한번에아리커’ 비료가 발작물 재배 농가들에게 인기가 있다. ‘한번에아리커’는 질산태 질소가 함유된 완효성 비료로 원예작물 생육에 적합하도록 설계됐다. 기존 완효성 비료는 수도작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발작물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한번에아리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된 완효성 비료로 지난 2019년에 출시됐고, 2020년에는 원예용 복합 비료 조성물 특허까지 출원했다.

‘한번에아리커’는 밧겨름 1회 시비로 웃겨름까지 해결해 노동력을 절감시켜 주고, 작물의 빠르고 고른 생육과 품질 향상 효과도 큰 비료다. 발작물이 선호하는 질산태 질소가 초기 생육을 확보해 주며, 꾸준히 용출되는 완효성 비료가 생육 후기까지 양분을 공급해 웃겨름 시비 횟수를 줄여준다. 또 황산칼리, 유황, 칼슘을 함유해 작물 품질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한번에아리커’를 사용한 농가들은 시비량이 관행 대비 80% 수준에 불과하고 웃겨름을 1~2회 생략하는 데도 불구하고 작물의 생육이 고르고 품질이 우수해 만족한다는 반응이다.

※ 2021. 8. 30. 한국농업신문 기사내용 인용

### ○ 농산물 구매로 농촌 돕는 팜한농

- 2년간 농산물 75톤 3억원어치 구매

- 코로나19로 일본 부족과 농산물 소비 감소 등 이중고 겪는 농가지원

팜한농(대표 이유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을 돕기 위해 농산물 구매를 진행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팜한농 임직원들은 7,000만원 상당의 마늘과 양파 총 13톤가량을 구매했다. 팜한농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해 임직원들의 농산물 구매 비용 절반을 부담했다. 앞서 2월과 3월에도 팜한농은 쌀, 사과, 토마토 등 우리 농산물 20톤 약 1억원어치를 구매했다.

팜한농은 지난해에도 쌀·마늘·양파 등의 지역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벌여 42톤(1억 3천여만원 상당)을 매입했다. 2년간 팜한농과 팜한농 임직원들이 구매한 농산물은 총 75톤 3억 2천만원 규모에 이른다.

※ 2021. 9. 6. 농기자재신문 기사내용 인용

## ○ 디지털농업 체험단 운영

팜한농(대표 이유진)이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파밍 솔루션 '미리(MIRI)체험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미리(MIRI)체험단'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추진하는 스마트팜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고도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딸기를 재배하는 소규모 단동하우스 농가가 대상이다.

체험단 참여 농가들에게는 디지털 온·습도 센서 등을 통해 작물 생육 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바일·PC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와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반의 병해충 발생 예측 정보 및 최적 방제 추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의 데이터 컨설팅도 지원해준다. 팜한농은 지난해 12월 디지털파밍 솔루션으로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히타치엘지데이터스토리지와 디지털농업 업무 협약을 맺는 등 디지털농업 저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2021. 9. 16. 농기자재신문 기사내용 인용

## □ (주)풍농

### ○ 고품질 마늘, 양파 생산은 엔피코 기능성비료!!!

- "명품유비료" "비효증진제, 완효성, 유기물함유 작물생육향상 기능성비료"

**고품질 마늘·양파 생산은 엔피코 기능성, 완효성비료 !!!**

**기능성비료**      **통은 더 굵게!**      **수확량 더 많이!**      **저장성 더 길게!**      **완효성비료**

**명품유비료**      **통연목들**

**공인기관 재배시험 결과 및 시범포 농업인 평가** [전국 1,400여 농가 실험시험]

- 품목 시험 아이오농기 "시원해보이도 마늘대 굵직하고, 통통해!"
- 품목 시험 아이오농기 "호기생육 체르고, 구가 단단하고 튼튼함!"
- 작물 시험 아이오농기 "비료 사용량 줄고, 수확량이 많음!"
- 품목 시험 아이오농기 "비효 증진제, 완효성, 유기물함유 작물생육향상 기능성비료"
- 작물 시험 아이오농기 "완효성을 위해서, 시리호과 재감!"

**구입처 | 전국농협, 원예, 과수농협, 풍농대리점      주문상담전화 | 080-022-4646      주식회사 풍농**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1~2      FAX : 02-552-2814



# 식량과 비료 -2021년 9월호-

기능성 신제품 엔피코 명품유비롱(18-9-8,고토1,붕소0.1,유기물10,비효증진제함유)는 기능성, 완효성 비료로 양분공급 기능을 강화하여 양분흡수효율 20%이상, 완효적 양분흡수 효과의 기능성, 완효성 시비절감형 비료입니다.

명품유비롱 비료는 기능성 비료효과증진제, 지효성 유기물, 완효성 및 필수양분을 고루 함유하여 마늘, 양파 등 원예작물의 양분흡수효율 20%향상으로 초기 뿌리활착 및 생육이 왕성하고 완효성, 유기물함유로 비효가 뛰어납니다.

전국 1,400여 농가 실증시험결과 농업인 95% 비료효과 만족, 공인기관 시험결과 마늘, 양파 수량 6~8% 증수, 구 중 및 크기 5~8% 증대로 비료효과가 뛰어난 기능성 제품입니다. 사용량 및 사용 방법, 명품유비롱 50kg/10a으로 전층시비 되도록 로터리 사용시 시비효율이 뛰어납니다.

※ 풍농 자료 인용

## 2 협회 주요 활동

-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분석 및 농업전문지 취재 협조(수시)
-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 제정(9.1) 시행 관련 조치 등
- 농식품부 · 농촌진흥청 등 당면현안 수시 보고 및 협의

## 3 무기질비료 관련 동향

### □ 농협경제지주, 계통공급용 무기질비료 구매가격 인상

- 평균 14.8%...농업인 판매가는 9.4% 올려
- 국제 원자재가격 상황 반영
- 생산업체 요청 일부 수용

농협경제지주가 급등한 무기질비료 국제 원자재가격 상황을 반영해 계통공급용 무기질비료 구매 가격을 평균 14.8% 인상했다. 다만, 비료가격 인상에 대한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 판매 가격은 9.4%만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무기질비료 계통공급가격 인상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무기질 비료 생산업체의 계약단가 인상 요청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한국비료협회에 따르면 요소 가격은 지난해 연말 톤당 274달러에서 올해는 8월 5일 기준, 466달러로 70% 올랐고, 염화칼륨은 같은 기간 235달러에서 460달러로 96%나 폭등했다. 지난해 연말 톤당 365달러였던 인산암모늄도 616달러로 크게 상승해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의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비종의 경우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한 상태다. 비료업체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무기질비료 생산량의 90%를 납품하는 농협 중앙회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일부 반영한 계통공급용 무기질비료 계약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회원사 : 남해화학㈜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1~2 FAX : 02-552-2814

요청했다.

이에 농협은 지난 6월말 농민단체, 학계, 정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비료공급 자문위원회’를 통해 비료가격 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하반기 비료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세부 검토를 거쳐 최근 구매단가 인상을 결정했다. 인상 폭은 평균 14.8% 수준. 다만, 농가 부담을 고려해 농업인 판매가격은 평균 9.4%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는 평균 인상률 14.8%에서 재고물량 10만톤을 인상 전 가격으로 적용한 평가액(37억원, 4.4%)과 농협 수수료 증가분(9억원, 1%)을 제외한 수치다. 최종적인 주요 비종별 농가 판매가격(20kg 한 포 기준)은 △요소 1만600원(9250원 대비 14.6%↑) △21-17-17 복합비료 1만2400원(1만1000원 대비 12.7%↑) △맞춤형 비료 1만442원(9339원 대비 11.8%↑) △시담(가격협의)비종 1만3072원(1만2757원 대비 2.5%↑) 등으로 결정했다.

농협은 하지만 비료업체에는 7월 19일자로 단가 인상분을 적용하되 농가에는 8월 18일부터 무기질 비료 판매가격을 올려, 농가의 실질적인 가격 부담을 평균 4.7% 정도로 최소화 했다. 이렇게 하면 호당 평균 증가액은 5265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며, 구매가격과 판매가격 인상 시점 차이로 발생하는 손실 40억원은 농협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농협은 내년도 무기질비료 계통구매 계약 단가의 경우 원자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연말에 다시 조정할 방침이다.

비료업계에선 가격 인상 자체보다 업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 비료업체 관계자는 “농협에 요청했던 것 보다 가격 인상폭이 낮아 아쉽지만,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내년 공급 물량 계약에선 가격 상승 요인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무기질비료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농업인단체도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농가 입장에서선 일부 생산비 부담이 생기지만 ‘불가피한 인상’이라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계약 물량 공급 자체가 어려워질 만큼 실제 국제 원자재가격이 폭등한 상황으로, 비료업체에선 당초 25~40% 수준의 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농협에서 농가 부담을 고려해 15% 선에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했지만 내년분 계통구매 계약 시에는 당시 원자재가격을 고려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 2021. 8. 31.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 무기질비료업계, 이중고 속 농가 비료공급 안정화 노력

- 상반기 기준 농업용 출하량 전년동기 대비 0.3% 증가
- 원자재 가격 상승세 이어지고 있어 비료수급 불안 여전
-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공급가격변동 시스템화 필요

한국비료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누계 무기질비료 농업용 출하량이 71만4천톤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0.3% 늘어났다고 밝혔다.

요소 단비는 8.6% 줄어든 반면 원예용비료 등 복합비료는 2.4% 늘어났다. 또한, 일반복비 3.8%, 원예용 5.4%, 완효성·기능성 2.7%가 늘어났으나, 맞춤형비료는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비료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과 해상 운송비 증가, 선박 확보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도 상반기 농가 비료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

했다.

실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주 공급처인 농협중앙회의 공급단가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년동기 대비 0.3% 증가한 농업용 출하 실적은 비료업계의 노력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무기질비료의 제조원료인 요소 등 원자재는 국내 생산이 없어 대부분을 수입해서 조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재 수급 및 가격에 국내 비료업계가 얼마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세 지속...수급불안 여전

최근 국제원자재가격은 영농 비수기임에도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수급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9월 2일 기준으로 국제원자재 중 요소가격은 주 수출국인 중국의 석탄원료 부족과 환경정책 강화로 수급 불안정이 발생했고, 중동지역은 해상운임 폭등과 원료확보 어려움 등으로 지난해 11~12월 대비 54% 급등했다.

또한, 암모니아는 중동지역 공장 가동중단의 여파로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어 지난해 대비 122% 폭등했다. 인산암모늄도 코로나19로 중국 내륙 운송차질과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확보 어려움, 해상 운임 폭등으로 지난해 대비 73% 급등했다.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는 올해 초부터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4월초 주 공급처인 농협중앙회에 비종별로 25~40% 수준의 공급단가 인상 조정을 요청했으나, 농협중앙회는 지난 7월 구매가격은 평균 14.8% 인상시킨 반면에 농업인 판매가격은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8월부터 9.4% 인상하는데 그쳤다.

### 비료업계 올 한해 500여 억원 영업적자 예상

비료업계 입장에서는 무기질비료 판매가격이 인상 조정됐으나 비료 사용 성수기 이후에 가격 인상을 적용했고 이전 판매량에 대해서는 인상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하반기 수요가 많은 월동 채소용 원예용비료는 가격이 동결되면서 비료업계는 올 한해 500여 억원의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비료협회 운영열 전무는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업체는 국내외 안팎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급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금번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의 인상 수준이 업계로써는 미흡한 상황에서도 비료 적기공급 및 품질관리, 가격안정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에 국제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라 국내 비료 공급가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공급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2021. 9. 10. 농기자재신문 기사내용 인용

## □ 무기질비료 14.8% 인상 결정·농협농가 상생 택해

- 64종 중 일반 무기질비료 35종 해당
- 농업인 판매 가격 9% 대 인상
- 올해 물량 80% 이상 소진·원예용 제외 아쉬워

농가 경영비 상승 부담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무기질비료 농협 계통 납품 단가 인상이 타결됐다.



# 식량과 비료

-2021년 9월호-

지난달 농협경제지주는 무기질비료 64종 가운데 일반 무기질비료 35종에 대한 평균 구매가격을 14.8%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국내 무기질비료업체가 경영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서 내려진 결정으로, 조비, 팜한농, 풍농, 한국협화, 세기 등 국내 무기질비료 업체들이 올해 초부터 요구한 농협 계통 납품 단가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무기질비료 납품 단가 인상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가격 인상이 곧 농가의 경영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협과 농업인단체, 농가 등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봉착한 업체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농업 전체 발전을 위한 상생을 위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가격 인상을 위해 농협은 지속적인 농업 현장 의견 수렴, 한국비료협회 및 비료업체 담당자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지난 6월 정부, 농민단체, 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료 공급 자문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비료업계에서는 농협중앙회에 비종별로 25~40% 수준의 공급단가 인상 조정을 요청했으나 최종 인상은 평균 14.8% 수준인 가운데 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고려해 농업인 판매가격은 평균 9.4%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는 평균 인상률 14.8%에서 재고물량 10만톤을 인상 전 가격으로 적용한 평가액과 농협 수수료 증가분을 제외한 수치다.

주요 농가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요소 1만600원(9250원 대비 14.6%) ▲21-17-17 복합비료 1만2400원(1만1000원 대비 12.7%) ▲맞춤형 비료 1만442원(9339원 대비 11.8%) 등으로 결정됐다.

반면 이번 가격 인상 결정이 생각보다 늦어져 비료업계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의견과 더불어 가을 양파, 마늘 등에 사용될 원예용비료가 가격 인상 품목에 빠져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월부터 마늘·양파·배추·보리 등 작물 생산에 필요한 비료가 판매되는데, 현재 원료가격으로는 대부분 원예비료가 한계이익도 나오지 않아 팔면 팔수록 비료업계는 적자가 누적되는 실정이다.

현재도 비료 판매를 하면 1포당 1500~2000원씩 손실을 보고 있어 일부업체는 농협 계약수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A 비료업체 관계자는 “농업 현장을 비롯해 농업계 전체 국제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료업계의 현 상황에 함께 공감해 주고 대안을 마련해 준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가격 인상이 이미 농업 현장에 80% 이상의 비료 물량이 나간 뒤에 이뤄진 부분은 매우 아쉽다”고 설명했다.

※ 2021. 9. 10. 한국농업신문 기사내용 인용

## □ 중국 식량안보, 글로벌 시장 뒤흔든다 ...“옥수수 수입 늘리고, 해운비료 값에도 영향”

- 중국,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 전년 대비 3.4배 확대
- 남미 수입도 늘려 해상 운임 상승 유발
- 비료 원료 확보에도 적극 나서

회원사 : 남해화학㈜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1~2 FAX : 02-552-2814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이 글로벌 곡물·해운·비료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이 식량안보를 이유로 해외시장에서 옥수수 등의 수입을 급격히 늘리면서 올해 국제 상품시장에서 곡물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정책 강화는 농산물의 안정 생산에 필수적인 화학비료의 원료나 해상 수송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 10년 전 미국산 옥수수 매입을 처음 발표한 이후 중국의 대미 옥수수 수입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보인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인 20·21양곡연도에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이 26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4배나 폭증했다고 발표했다.

스미토 글로벌리서치의 혼마 다카유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매입이 급증한 요인 중 하나로 장강 유역의 심각한 홍수 피해를 꼽았다. 그는 “중국이 시장 침체에 쌓아뒀던 재고의 상당 부분을 못 쓰게 됐으며, 이상 기후로 곡물 수출을 중단하는 생산국도 생겨났다”며 “이에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 중국이 적극적으로 곡물 매입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수입 증가는 국제 시세를 끌어올려 각국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중국은 마·중·마찰 속에서 거리가 먼 남미로부터의 수입량을 늘려 해상 운임이 급등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벌크선 시장을 나타내는 발틱해운지수가 지난달 급등한 것은 중국이 델타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입항 규칙을 엄격하게 했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들은 해외 농지나 식품·유통 기업 인수에 나서는가 하면, 농산물 생산성을 높이는 화학 비료 원료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그 결과는 도미노처럼 다른 나라 농가로 이어졌다. 일본 전국 농업협동조합연합회는 5월 말 “6~10월 비료 가격을 지난해 11월~올해 5월 대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주요 산지의 수요가 왕성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요에 염화칼륨 국제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 2021. 9. 7. 이투데이 기사내용 인용

##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자체 이전 본격화

- ‘2022년도 예산안’서 빠지고
- 행안부 교부금 형태 배정도, 3~5년 뒤 지자체로 완전 내려

농축산단체와 유기질비료업계의 강력한 국가사업 존치 요청에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이관이 본격화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편성한 내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이 정부가 국회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서 빠졌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이관이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은 1130억원. 농식품부는 당초 내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산도 올해와 동일한 1130억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접수한 ‘농식품부소관 예산안’에선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찾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 예산안에서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항목 자체가 사라졌다. 본보 확인 결과, 농업계의 지속적인 반대 입장

전달에도 정부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자체 이관을 실질적으로 확정하면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 관련 사업 예산에 묶여 행정안전부로 넘어갔다.

문제는 재정분권 업무를 수행하는 행안부로 내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 편성이 넘어간 지금까지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사업 축소나 포기, 유기질비료 수급불균형에 따른 축산분뇨 대란 우려 등에 대한 대응책은 어느 하나 나온 게 없다는 것이다. 다만, 현행법에는 국가사업을 지자체에 이관 하더라도 3년 동안은 행안부에서 해당 사업 예산을 지자체에 교부금 형태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후 사업 권한이 지자체에 완전하게 넘어가는 시점부터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이 행안부에서 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내려가는 동안은 사업이 기존 방식 그대로 운영되지만, 사업 권한이 지자체로 완전하게 넘어간 다음부터 중앙부처에서 간섭할 수 없게 된다”며 “지자체로 완전하게 권한이 넘어간 이후에도 지자체가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국가 보조 사업 예산 편성 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실적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3년, 최대 5년 후를 예측할 수 없는 농업계는 애가 탈 수밖에 없다.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면 다행이지만 농업계 우려대로 복지예산 수요 증가 등으로 지자체 재정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시군단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일부 지역에서는 도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수혜 대상인 농가 입장에선 그야말로 잘 해야 본전인 셈이다.

※ 2021. 9. 17.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 [전문가의 눈] 양분관리, 비료사용 감축만이 답인가



윤영만 (국립한경대 식물생명 환경과학과 교수)

정부는 올해 안에 농경지로 투입되는 양분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지역단위 양분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양분수지 지표는 질소수지가 212kg/ha, 인수지가 46kg/ha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양분수지 지표란 농업생산에 사용된 비료 성분 중에서 작물에 흡수되지 못하고 대기 또는 하천으로 유출되는 비료 성분의 양이다.

이처럼 양분수지가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농촌현장에서 양분이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정부는 지역단위 양분관리 제도를 통해 농경지 비료 투입량을 줄임으로써 비료의 하천 유입이나 온실가스 배출 등 비료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환경 오염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농경지에서의 양분 과다 문제를 농업이나 농민들의 문제로만 봐선 안된다. 우리나라가 1970~1980년대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집약적인 고투입 농업 방식의 도입이 불가피했다. 안정적인 식량자원 확보 등 국가 산업을 성장시킬 견인차 역할을 우리 농촌현장에서 했다는 점 역시 간과 해선 안되는 지점이다.

현재 농업환경의 오염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농약과 같이 과거농업에 사용하지 않던 이물질에 의한 오염문제다. 농약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사용량과 잔류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는 질소·인과 같이 과거부터 사용해오고 있으나 과다한 사용으로 농업환경에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오염문제다. 질소·인과 같은 비료 성분은 농약과 달리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 외에도 ▲완효성 비료 사용을 통한 작물의 비료 이용효율 개선 ▲토양 속 유기물의 증진을 통한 비료 성분 유출 저감 등 농업환경 내에서 비료 성분의 순환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지역단위 양분관리 제도에는 단순히 농경지 비료 투입량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위와 같은 다양한 대책이 도입돼야 한다. 비료 성분의 오염 특성을 고려해 양분 사용 저감의 주체인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농경지 양분 투입 저감은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이 감소해 농업생산성 감소라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농경지 양분 투입 저감에 따른 환경적 편익효과와 작물생산성 감소 영향을 분석하는 과학적 방법론의 마련도 필요하다. 양분관리 제도 도입에서 과학 기술 역할을 기대해본다.

※ 2021. 9. 27.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4 농정 이슈

###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국가식량계획’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 ‘국가식량계획’은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공급뿐만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다.

- 동 계획은 ‘21.3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올해 3~6월까지 5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늘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논의·확정되었다.

◆ 국가식량계획은 국내외적 여건에 맞춰 ①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②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③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를 3대 중점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 국가식량계획(안) 추진 방향 및 과제

### 비전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

### 3대 전략 및

### 9개 중점 과제

전략1: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①(위기 대응력 강화) 비축제도 개선, 해외 공급망 확보, 국제협력 강화
- ②(공급 기반 확보) 밭·콩 생산단지 구축, 농자·인력 등 생산요소 관리
- ③(지역단위 자급력) 로컬푸드 기반 지역 푸드플랜 수립·확산

전략2: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 ④(친환경 생산·소비) 경축순환농업 확대,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 ⑤(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정보 제공, 기후변화 적응 품종 개발
- ⑥(탄소중립 실천) 농어업분야 탄소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확산

전략3: 먹거리 접근성 보장

- ⑦(먹거리 통합지원) 저소득층 대상 최소한의 먹거리 지원
- ⑧(건강·영양 개선) 식생활 교육 강화, 영양정보 DB 구축·활용
- ⑨(농식품 안전관리) PLS 정착·확대, 수입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추진 기반

법적 근거 + 기본 계획 + 민관협의체 운영

### 기대 효과

- ◇ 밭·콩 자급률 : (19) 0.7% / 26.7% → (25) 5.0 / 33.0
- ◇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 (18) 20.1백만톤 → (30) 19.0
- ◇ 소득 1-5분위 식품안정성\* 격차 : (18) 11.4%p → (30) 7.0

※ 2021. 9.16. 농식품부 보도자료 인용

### □ 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확정

- 경축순환 시범지구 15곳 조성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확충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도 늘려 농약 비산 방지·생산 규모화

정부가 2025년까지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전체의 10%로 확대한다.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확충하고, 학교급식에 의존하는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대형마트 등으로 다각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최근 확정했다.

◆ 탄소 감축 농업기반 구축=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감축한다. 농가가 적정량만 시비할 수 있도록 토양 상태를 확인해주는 토양검정 필지수를 지난해 53만4000점에서 2025년 60만점으로 확대하고, 시비 처방 대상 작물수도 같은 기간 226종에서 246종으로 늘린다.

가축분뇨 퇴비·액비와 유기농업 자재가 얼마만큼의 질소·인산·칼륨(칼리)을 포함하는지 표시하는 성분 표시제를 마련하고, 2025년에는 미생물제제 품질·기능성 인증제도 도입한다.

경축순환 시범지구를 올해 3곳 조성하기 시작해 2025년 15곳까지 늘려간다. 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과 공공처리시설을 현재 14곳에서 26곳으로 확충한다. 이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지난해 1ha당 266kg에서 2025년까지 233kg으로, 농약은 10.5kg에서 9.5kg으로 줄인다.

지역 단위 농업환경 보전활동을 강화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를 '농업환경 보전계획'으로 확대 개편한다. 기존 계획에 담기지 않았던 영농폐기물 처리 방안,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추진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획 수립 지자체수도 지난해 67곳에서 2025년 100곳까지 늘린다.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전체 친환경 재배면적의 20%까지 늘린다. 집적지구는 친환경농지의 집적도를 높여 농약 비산문제를 막고 생산을 규모화한 생산 거점을 말한다.

현재 238곳 친환경농업지구 중에서 집적지구를 우선 선정하고, 집적지구의 규모와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환경친화적으로 농사짓는 농민을 인정하는 '과정 중심의 인증'을 집적 지구에 우선 도입하고, 집적지구 내 규제 특례,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도 검토한다.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지난해 전체의 5.2%에서 2025년 10%까지 확대한다. 특히 집적지구 내에선 개인간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바뀐 '농지법 시행령'을 적극 활용해 청년농·귀농인 등을 친환경농업으로 끌어모은다.

일반·무항생제 축산농가에 컨설팅 등을 확대해 유기축산물 인증농가수도 지난해 104곳에서 2025년 160곳까지 늘린다.

친환경농업직불제도 개편한다. 친환경농지와 일반농지의 경계는 경관식물을 식재하는 완충지대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손실 일부를 직불금으로 보전한다. 또 친환경농업 전 과정에 걸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연구해 직불금 단가와 상한면적도 개선한다.

※ 2021. 9. 8.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 태양광에 여의도 31배 농지 줄었다...식량안보·경제성 다 놓칠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목적으로 전용한 농지가 9000ha(90만km<sup>2</su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의 30배 넘는 농지가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에 사라진 것이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경지 면적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식량 안보를 위한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 추진에 농업·농촌 식량안보와 경제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10년 들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목적으로 전용한 농지는 2016년까지 7년 동안 1553ha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에만 1438ha나 증가했다.

2018년에는 농지법 개정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쉬워지면서 3675ha로 허가 면적이 크게 확대됐다. 2019년에는 2555ha, 지난해 1287ha로 점차 줄었지만 최근 4년 간 총 8955ha(89.6만km<sup>2</sup>)로 여의도 면적(2.9km<sup>2</sup>)의 31배에 달하는 농지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라진 셈이다.

정부는 최근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이 감소 추세에 있고 전체 농지 전용 면적 중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 전용 비중도 2018년 22.5%에서 2019년 15.5%, 지난해 7.4%로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태양광 설치 후 발전된 전기를 한전의 전력 판매 선로에 연결하는 과잉인 계통연계 지연에 따른 경제성 저하라는 분석이다.

전체 경지 면적은 2010년 171만5000ha에서 2019년 158만1000ha로 연평균 0.9% 감소 했다. 농작물 생산량도 같은 기간 동안 1544만3000t에서 1526만2000t으로 연평균 0.1%씩 줄었다.

경지면적 감소 및 소비자 식습관 변화 등의 복합적 이유로 곡물 자급률은 2015년 23.8%에서 2019년 21.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수립한 2022년까지 식량 자급률 목표 55.4%, 곡물 자급률 27.3%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늘고 자급률을 높이는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태양광 발전 확대에 따른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식량·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김연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탄소중립, 농촌 태양광의 이슈와 과제’를 통해 “농업·농촌은 식량안보, 공익적 가치·다원적 기능 등이 중요하게 강조됐으나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 추진에는 이 같은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농촌 태양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장기적인 식량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은 전기 생산과 수요처를 연계해주는 계통연계 시설의 불균형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농촌 태양광은 농업·농촌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반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태양광 설치농가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수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큼 고정 가격 계약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2021. 9.19. 세종=뉴시스, 동아닷컴 기사내용 인용

### □ ‘농어업회의소법’ 국무회의 통과

- 국가·지자체 농정과정 참여
- 정치적 중립 의무 등 명시
- 운영경비 지원 근거도 마련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기초·광역 및 전국 농어업 회의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11년째 시·군 공모를 통해 ‘농어업회의소 설립 시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현재 21개 지역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입법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농업계에서도 농어업회의소가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돼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농어업회의소의 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 자문·건의, 교육·훈련 등이며,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시됐다.

설립요건을 보면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경우 농어업인 30명 이상 발기 및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전체 기초농어업회의소 1/5분 이상 발기 및 1/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의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 관할 대상 행정구역 수의 1/5 이상 발기 및 1/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회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경우 일반회원인 농어업인과 특별회원(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비영리 법인, 농어민단체 등) 등으로 구성하고,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기초농어업회의소와 특별회원(업무구역이 광역시·도에 속하는 농어업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이뤄진다.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일반 회원인 기초·광역농어업회의소와 특별회원(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농어민 단체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회의소의 기관은 대의원총회와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기초·광역농어업회의소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근거도 법안에 넣었다.

농식품부 최정록 농촌정책과장은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면 농어민은 물론 기존의 농어민단체도 회원으로 참여해 농어업회의소가 명실상부한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 위상을 정립할 것"이라면서 "농어업 회의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농어민과 농어민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2021. 8.31.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 농식품부 '22년 예산 및 기금안 16조 6,767억 원 편성

◆ 농림축산식품부 '22년 예산·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16조 6,767억원으로 올해(16조 2,856억원) 대비 3,911억원(2.4%) 증가

① 농촌재생: 농촌 공간계획 및 재생지원(31억원, 5개소 → 322, 45), 귀농귀촌 통합플랫폼(76억원), 청년영농정착지원금(322억원 → 375) 등

②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쌀 공공비축 물량 확대(35만톤 → 45), 밀·콩 자급률 제고(1,831억원 → 1,910), 농지관리 강화(47억원) 등

③ 탄소중립: 소 사육방식 개선사업(26억원), 농업·농촌 RE100 실증(18억원),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29억원, 2개소), 공동자원화시설(110억원) 등

④ 스마트농업 확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410억원, 6개소), 스마트 산지유통시설(112억원, 17개소), 데이터 기반 서비스 지원(62억원) 등



※ 2021. 9.1. 농식품부 보도자료

### □ 2021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 ◆ '21년 벼 재배면적은 732,477ha로 전년 726,432ha보다 0.8% 증가
  - 쌀 가격 상승세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금년도 벼 재배면적 증가
- ◆ '21년 고추 재배면적은 33,373ha로 전년 31,146ha보다 7.1% 증가
  - 전년 고추 가격 상승에 따른 금년도 고추 재배면적 증가

※ 2021. 8.31. 통계청 보도자료

### □ 2021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 ◆ 2021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개요
  - 2021년 봄감자 생산량은 37만 9,672톤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
  - 2021년 봄감자 재배면적은 1만 4,266ha로 전년 대비 12.7% 감소
  - 2021년 봄감자 10a당 생산량은 2,661kg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

※ 2021. 9.9. 통계청 보도자료

### □ 농해수위 국감일정 확정·농식품부 10월 5일, 해수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9월 16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0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고 '2021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계획서에 따르면 국정감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10월 1~21일까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총 36개 기관이 국정감사 대상이다.

주요 기관별로 보면 △농식품부(10월 5일) △해양수산부(7일) △농촌진흥청(8일) △산림청(12일) △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14일) △농협중앙회(15일) △수협중앙회(19일) △농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20일) △해수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21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2021. 9.17.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

### □ 국회 농해수위 재편

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태흠 의원(3선)을 농해수위원장에 선출했다.

#### ■ 국회 농해수위 위원명단

위원장 국민의힘 김태흠(충남 보령시서천군) / 간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 서귀포시) /간사 국민의힘 이만희 (경북 영천시청도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경기 화성시병)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맹성규 (인천 남동구갑) / 서삼석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어기구 (충남 당진시) / 윤재갑 (전남 해남군완)

회원사 : 남해화학㈜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1~2 FAX : 02-552-2814



# 식량과 비료 -2021년 9월호-

도군진도군) / 이개호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이원택 (전북 김제시부안군)/ 주철현(전남 여주시갑)/ 최인호 (부산 사하구갑)

국민의힘 김선교 (경기 여주시양평군) / 안병길 (부산 서구동구) / 이양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 양양군)/ 정점식 (경남 통영시고성군) / 홍문표 (충남 홍성군예산군)

무소속 박덕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2021. 9.6. 월예산업신문 기사내용 인용

## 5 무기질비료 수급상황

### □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단위 : 천톤, 누계)

구분	'18년	'19년	'20년	'20년 7월말	'21년 7월말
생 산 량	2,332	2,319	2,142	1,360	1,475
출 하 량	2,216	2,218	2,054	1,384	1,560

※ 협회 7개 회원사 기준

### □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입가격·환율

(단위 : \$/톤, 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0년 8월말	'21년 8월말
요 소	304	313	289	255	489
D A P	421	380	326	-	603
염화칼륨	319	350	296	263	369
환 율 (매매기준율)	1,100.30	1,165.65	1,180.27	1,186.85	1,160.34

※ 관세청 무역통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인용

## 6 무기질비료 우수성 홍보

### □ 발작물에 황이 든 비료가 좋은 이유

우리나라 밭에는 황이 부족한 형편이기에 벼농사가 아니면 유안이나 황산칼륨을 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발작물에서 황(S)은 질소, 인산, 칼리와 함께 4대 원소에 속할 만큼 중요한 다량원소입니다.

회원사 : 남해화학㈜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1~2 FAX : 02-552-2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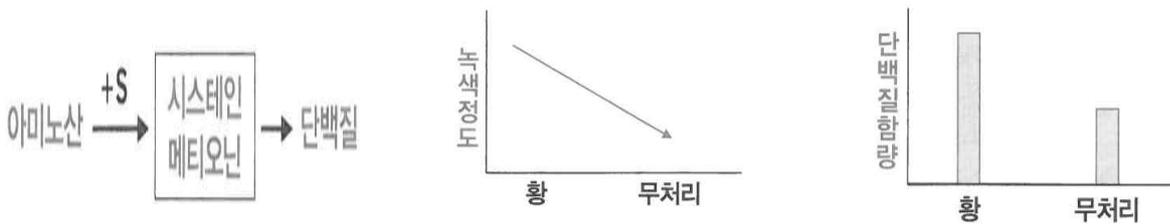
## ●발작물의 필요 원소 순서

**N ÷ P ÷ K ≥ S ÷ Ca ÷ Mg**

식물 단백질의 1/30~1/40은 반드시 황이 함유된 단백질인데 일단 단백질은 질소를 흡수하여 만들어지고 황함유 단백질은 황이 흡수되어 만들어집니다.



황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만드는데 중요한 시스테인과 메티오닌이 줄어들어 단백질 합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엽색이 옅어지고 단백질 함량도 적어지고 수량도 적어집니다.



특히, 양파나 마늘에 황이 부족하면 설퍼옥시화물이 감소되어 황이 약해져서 품질이 떨어지고 십자화과에 속하는 브로콜리, 양배추, 순무, 콜리플라워 등에 황이 부족하면 황백화현상이 나타납니다.



엽채류나 황이 중요한 발작물에는 복합비료를 사용하거나 맞춤형비료를 사용할 때 황이 함유된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논에서는 황이 든 비료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토양을 산성화시키거나 추락담의 원인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황산을 포함한 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철이 적은 화강암이나

화강편마암 등으로 이루어진 논토양에서는 황화수소에 의해 뿌리를 상하게 하고 뿌리 성장이 나빠져 토양을 산성화시킨다고 합니다.

※ 자료 :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현해남 교수, “흙과 비료이야기”

## 7 이달의 주요 인사

## 8 회원사 제품소개

### □ 남해화학(주)



- 제품명 : 쾌청(보리, 밀, 조사료)
- 성분량 : 22-16-5+1+0.1+CAS
- 특성 및 효과
  - 보리, 밀 등 사료작물을 위해 특별 설계
  - 인산, 칼슘유황으로 냉해방지 및 수량증대에 효과
  - 고성분 비료로 시비노동력 절감가능

### □ (주)조비



- 제품명 : 스피드킹
- 성분량 : 18-7-10+1+0.1 (질산태 질소, CB04 함유)
- 특성 및 효과
  - 속효성인 질산태 질소를 함유하여 저온에서도 작물의 양분흡수가 빠름
  - 질산태 질소는 양이온의 흡수를 좋게 하여 작물의 생리장애 예방 및 고품질 생산에 도움을 줌
  - 질소/인산/칼리 성분이 모두 함유되어 있어 균형 잡힌 양분 공급이 가능
  - 대사활성물질 CB04 함유로 초기생육이 좋음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1~2 FAX : 02-552-2814

## □ (주)카프로



- 제품명 : 유안비료(황산암모늄)
- 성분량 : 질소20.5%, 유황 24%
- 특성 및 효과
  - 녹거나 굳어지는 일이 적어 수송이나 보관하기 좋고 물과 토양 중에서 잘 녹으며 암모니아태 질소로서 화학반응 없이 벼에 직접 흡수되므로 요소보다 질소 흡수율이 높음
  - 채소, 과수와 같은 유황을 다량으로 요구하는 작물에 효과가 큼

## □ (주)팜한농



- 제품명 : 한번에아리켜
- 성분량 : [21]-10-11+0.1붕소
- 특성 및 효과
  - 저온 흡수력이 좋은 속효성의 질산태 질소 비료와 비효가 오래 가는 완효성 비료가 혼합
  - 작물의 초기 생육을 돕고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해 추비를 생략할 수 있음

## □ (주)풍농



- 제품명 : 썰파원에
- 성분량 : 11-7-(9), 고토1, 붕소0.2, 유황18, 황산칼리 함유
- 특성 및 효과
  - 원예·과수작물 재배시 필요한 필수 3요소 및 고토, 붕소 및 다량의 유황, 미량요소가 풍부히 함유된 밀거름비료
  - 마늘, 양파, 생강의 황함유 아미노산함량 증가로 품질개선과 저장성 향상
  - 감자, 고구마의 전분함량을 높이며, 엽채류와 유지작물의 수량 증대효과

## □ (주)한국협화



- 제품명 : 망심골드
- 성분량 : 12-8-[9]+2+0.2+TPA(유황, 칼슘, 미량요소 함유)
- 특성 및 효과
  - 유황, TPA함유로 모든 작물에 사용 가능한 비료
  - 기능성물질 TPA 함유로 뿌리 발육촉진, 영양분 흡수
  - 토양산도 교정과 작물의 높은 내병성 향상

## □ (주) 세기



- 제품명 : 원샷특호
- 성분량 : 13-8-(10)+2+0.2(황산가리 사용)
- 특성 및 효과
  - 고토, 붕소, 유황, 석회, 규산 등 미량요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좋음
  - 황산가리가 함유되어 맛, 떼깎, 저장성을 높여 주어 과실의 신선도를 높여줌

※ 2020 무기질비료 사용 안내서 인용



# 식량과 비료

-2021년 9월호-



한국비료협회



무기질비료를  
적정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입니다.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1~2 FAX : 02-552-2814